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17	10. 24	10. 31
대 표 기 도	김복자 권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복자 권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예배 전 찬양 - 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2. 회중 찬송 -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소리 내어 부르실 수 있습니다.
3. 담임목사 동정 - GMS 지역대표회의 참석으로 한국에 방문합니다(10월 13일~11월 6일)
4. 설교 - 다음 주일(17일)은 홍성훈 목사님(카셀)께서 해 주십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추수감사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 252장 ..... 다같이  
 기 도 Gebet ..... 황희순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 요 6 : 32 - 35(신p153)..... 황희순 집사  
 설 교 Predigt ..... 예수, 생명 나눔!.....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 254장 .....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복자 권사

## 필요를 채워주는 친구

언제나 한결같으면서 내게 좋은 영향을 준 친구가 몇 명있는데, 그중 한 명은 동년배가 아닌 음악을 하는 선배 형입니다. 나랑 나이가 열두 살이나 차이 나는 그 형님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생활에 절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도 형님은 내 옆에 한결같은 자세로 있었습니다.

1981년 갑작스럽게 공황장애라는 병을 얻어 고통 속에서 음악을 하는 동안 그 형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는 참 많았습니다. '이 밤을 다시 한 번'이라는 곡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나는 거의 10여 년을 솔로로 음악활동을 했는데 나의 음악적 삶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도 바로 그 형님이었습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그 형님을 찾아갔고, 형님은 밤이든 낮이든 나에게 귀중한 친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1997년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게 더 이상 세상의 가르침에 대한 선생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난 그 형님을 찾아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했더니 형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격려해주셨습니다.

그 형님을 떠올리면 친구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칭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같이 울어 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같이 울어 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 조하문 목사  
 (사랑의 빛 공동체교회 담임)**

**\*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밀어주는 사람은 누구나 당신의 친구이다.**

- 무명의 작가 -